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y OPACs of Major Countries

김정현(Jeong-Hyen Kim)**

초 록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실태분석을 위해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과 레코드의 소장상황,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할 때 대략 2~3배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대체로 '역사'와 '경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비해 남한관련 레코드가 1.5~5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는 오히려 북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등의 용어는 국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정치적, 역사적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여 나타냄으로써 일부 주제명의 표기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data related to Korea shown in the catalog of 15 countries.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ubject characteristics of Korea-related subject heading, record colle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veral subject heading, which has been a major iss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related record in most other national libraries runs absolutely short except for some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Korea-related record is generally 2 to 3 times less than Japan related record. Second, referring to the subject distribution in sub criteria of Korea-related record, subject related to 'history' and 'economy' is shown in the highest rate. Considering that 'Korean war' shows the highest rate in Italy and Canada, we can consider that this may cause the distortion of the perception of Korea. Third, in the case of Korea-related record, the record of South Korea is 1.5 to 5 times more than that of North Korea, except for some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Forth, regarding the subject headings, the terms such as 'Taekwondo', 'Kimchi', 'Tok-do', 'Tong-hae' have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untries. However, these terms agree to LCSH in most countries except for neighboring countries. Fifth, in case of China and Japan, the subject headings in reference to political and historical position are raising some problems.

키워드: 국가도서관, 주제명표목, 한국, 온라인 열람목록, 주제색인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 KOREA, OPAC, subject index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H00015).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논문접수일자: 2011년 8월 16일
- 초심사일자: 2011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28(3): 141-162, 201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141]

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생각만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한 만큼만 그들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의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한국관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성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는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관련 주제명을 검색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가운데 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관련 자료에 대해 각국의 도서관, 특히 영향력 있는 각국의 국가도서관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또한 주제명은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변화추이를 항상 주목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조차 분석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들 국가도서관의 목록에 한국관련 레코드가 얼마

나 소장되어 있는지, 주제별 분포는 어떠한지, 또한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명이 이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과 레코드의 소장상황,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온라인열람목록(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을 통해서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주제명 레코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국가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국가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각국의 국가도서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는 편의상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교적 OPAC 접속이 용이한 1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터키, 폴란드, 네덜란드, 일본)과 우리나라와 직접 영토를 접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2개국을 포함하여 15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지구상에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성장과 정치, 사회, 문화 등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도서관의 목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이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15 개국의 국가도서관에 대한 자료현황과 목록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각 국가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하여 국가별로 한국관련 주제명을 주제별로 구분한 다음, 대략적인 주제별 분포, 레코드 수, 그리고 국가간의 한국관련 주제명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LCSH에서 주제명 '독도'와 같이 한국 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제명('독도'를 포함하여 '김치', '태권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의 표기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이란 '김치'나 '태권도'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일부 주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에 상응하는 각국의 언어)이 포함된 주제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관련 주제명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주제명의 특성이나 대략적인 레코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선행연구

일반적인 주제명표목표나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널리 소개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제명표목표나 도서관의 OPAC을 통해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Kim(1989)은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제12판의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알파벳순으로 편집하였다. 김영귀(1997)는 주제명표목표로서 LCSH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LCSH 제18판을 대상으로 정치와 정부, 언어, 예술, 문학, 그리고

역사 부문의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윤정옥(2001)은 LCSH 제20판을 대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들의 선정 형식을 조사하고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명의 개략적인 주제 분포 및 세분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남태우 등(2008)은 LCSH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의 '독도'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한·미·일 지명위원회 및 KDC, LCC, NDC 등의 표준분류체계내의 '독도' 기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연경(2010)은 주제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분석하면서 '독도'의 표기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김정현(2010)은 LCSH 초판부터 최신판인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에서는 주요 6개국의 한국관련 주제명 자료집을 편찬한 바 있으며, 문지현(2011)은 일본의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중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LCSH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의 OPAC을 조사하여 한국관련 주제명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2.1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현황

각국의 국가도서관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발전하여 왔다. 즉, 성립과정이 상이하고 그 성격도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National Library of ~'와 같이 명명하고 있으며, 여기서 'National'이란 의미는 '국가' 또는 '국립' 모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Diet Library'와 같이 의회도서관(또는 국회도서관)으로, 캐나다는 'Library and Archives Canada'와 같이 도서관 및 문서관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The British Library'와 같이 'National'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의 성격상 국가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도서관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명과 도서관을 조합하여 공식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도서관은 국가가 설립 및 운영주체이고 정부예산으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국의 모든 관중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윤희운 2006, 8).

주요 국가도서관의 현황은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자료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한국관련 자료수와 일본관련 자료 수는 해당 국가도서관

의 OPAC을 통해 조사하였다. OPAC에서 주제명(주제명이 없는 경우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 'Japan'과 'Japanese'가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으며,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검색하였다. 여기서 주제명 가운데 이들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태권도'나 '김치'와 같이 주제명표기상 관심이 높은 한국관련 주제명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일본관련 용어는 'Japan'과 'Japanese'가 포함된 레코드만 포함하였다.

<표 2>는 주요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수와 한국관련 자료,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관련 자료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국가도서관의 자료 대비 한국관련 자료 수는 호주 국가도서관이 0.6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규모는 미국의회도서관이 91,28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호주 국가도서관이 32,492건으로 나타난 반면, 1,000건 미만의 도서관도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터키, 폴란드, 네덜란드, 러시아 등 7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한국에 비해 2~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도서관의 명칭

국가도서관의 명칭	해당 국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폴란드, 멕시코, 중국, 러시아, 한국
의회도서관(또는 국회도서관)(Congress, Diet)	미국, 일본
국가도서관 + 문서관(Library and Archives)	캐나다

〈표 2〉 주요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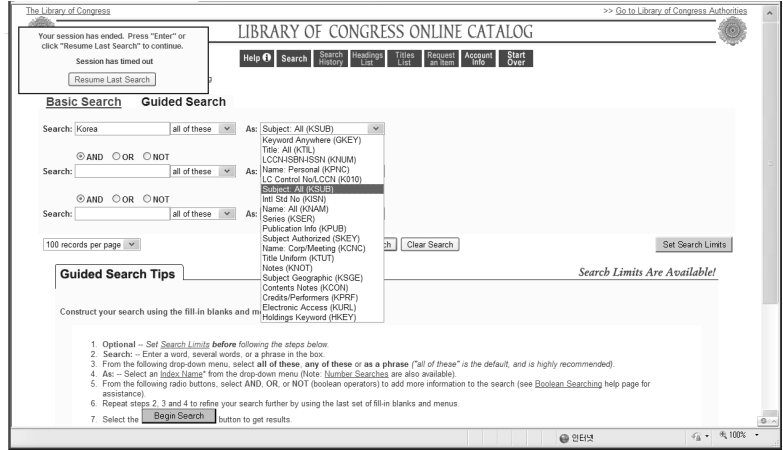
구분 국가	국가도서관	자료 수	한국관련 자료 수(%)	일본관련 자료 수(%)
미 국	Library of Congress	1억4,000만 (3,300만 장서)	91,281(0.07)	194,815(0.14)
영 국	The British Library	1,400만	8,113(0.06)	20,914(0.15)
프랑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3천만 (1,400만 장서)	5,498(0.02)	15,459(0.05)
독 일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540만	1,689(0.01)	5,668(0.02)
호 주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500만 (270만 장서)	32,492(0.65)	89,231(1.78)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천만	1,075(0.005)	4,178(0.02)
이탈리아	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600만	104(0.002)	589(0.01)
스페인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300만	781(0.03)	1,912(0.06)
멕시코	Biblioteca Nacional de México	125만	285(0.02)	517(0.04)
터 키	Milli Kütüphane	293만	238(0.08)	222(0.07)
폴란드	Biblioteka Narodowa	790만	353(0.004)	1,083(0.012)
네덜란드	Koninklijke Bibliotheek	600만	441(0.007)	2,434(0.04)
러시아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1,750만	827(0.005)	2,824(0.016)
중 국	中國國家圖書館	2,410만	11,153(0.05)	69,587(0.29)
일 본	國立國會圖書館	3,662만	12,353(0.03)	
한 국	국립중앙도서관	822만		7,032(0.09)

* 2011. 5. 25. 기준임

2.2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 특성

각국의 국가도서관 OPAC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회도서관의 OPAC을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은 미국의회도서관 OPAC의 초기 검색화면이며, 원문 상단에 'Basic Search'와 'Guided Search'가 나타나 있다. '기본검색'과 '확장검색'이며,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2가지로 구분하여 검색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용어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Guided Search'(확장검

색)을 선택한 다음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키워드, 표제, 저작자, 주제명, 분류기호, 출판정보 등의 선택요소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자관의 제어번호, 통일표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주제명은 일반 주제명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일반 주제명과 함께 자관에서 통제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에서와 같이 탐색용어간에 불리언 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회도서관의 OPAC(초기 검색화면)

3.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분석

3.1 한국관련 주제명의 국가별 분석

주제명표목의 주제영역은 <표 3>과 같이 철학·종교,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세

부항목은 LCSH에서 추출한 한국관련 주제명을 유사한 주제로 군집화 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주제세목, 지리세목, 시대세목, 형식세목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부항목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제적인 주제명표목(주표목)이다. 각국의 주제명은 언어가 다른 경우 표기방식이 다르며, 같은 언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주제명이 적용되고 있다.

〈표 3〉 주제명표목의 영역별 구분

주제영역	세부항목
철학·종교	① 철학, 윤리, 유학,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③ 종교, 신학, 기독교, 불교
사회과학	① 사회일반, 언론, 인구, ② 경제, 무역, 산업, ③ 문화, 유적지, ④ 정치, 통일문제, 핵문제, 군사분계선, ⑤ 외교, 국제관계, ⑥ 법률, 인권, 교육, ⑦ 국방, ⑧ 한국인, 민족, ⑨ 여성
기술과학	① 자연과학, ② 기술과학, ③ 의학, 병리학, ④ 농업, 수산업, ⑤ 음식, 요리, 김치
예술	① 예술일반, ② 음악, ③ 미술, ④ 건축, ⑤ 조각, ⑥ 영화, TV드라마, ⑦ 도자기, ⑧ 태권도, 스포츠, 축구, 2002월드컵
언어	① 언어
문학	① 문학일반, ② 시, ③ 소설, ④ 희곡, ⑤ 수필, ⑥ 산문, ⑦ 풍자
역사·지리	① 역사, 전기, ② 한국전쟁, ③ 지리, 지도, 국경, 영토, 산, 강, ④ 여행, 안내

각국의 한국관련 주제명 레코드는 확장검색에서 주제명으로 검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제명간에 불리언조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국관련 주제명의 구체적인 주제별 분포 현황과 해당 주제명의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다. 각국의 주제명표목은 <표 3>에 제시한 세부항목이 결합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각국의 언어 구조에 따라 동일한 주제명이라도 한국을 나타내는 지리세목이 주제명 첫 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특정 주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 주제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다. <표 4>에서 특정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 3>의 세부항목별로 주제명과 레코드수를 모두 조사하여 구분하였지만 <표 4>에서는 주제영역까지만 나타내었다. 또한 각국의 한국, 남한, 북한관련 레코드도 조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주제명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1.1 미국 국가도서관

미국의 국가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수도인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억4,000만건의 자료(도서 3,300건)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7%에 달하는 91,281건으로 조사대상 국가도서관가운데 레코드건수가 가장 많다. 일본관련 레코드는 0.14%인 194,81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가 주제명 및 레코드 수에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한국인'이 897건(11.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798건)>사회일반(737)>역사(625)>경제(582)>한국전쟁(511)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포에서는 '정치'가 11,219건(12.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일반(9,141건)>경제(8,903)>역사(8,713)>법률(5,326)>언어(5,31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과학 분야에서 주제명 192건(2.4%), 레코드 1,706건(1.9%)으로 가장 적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Korea(South)'라는 주제명이 포함된 레코드가 35,128건, 'Korea(North)'가 포함된 레코드가 7,171건이다. 한국어 자료는 알파벳으로 번자표기되어 있으며,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주제명은 LCSH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Tae kwon do'로 165개, 'Karate'로 625건이 검색되었다. 그런데 '태권도'는 'Karate'(가라테)의 하위세목('가라테'는 '유도'의 하위세목으로 되어 있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표제 키워드에 '태권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이 'Karate'만 나타나 있는 레코드도 27건이 있다. '김치'관련 주제명은 'Kimuchi'가 아니라 'Kimchi'로 표기되어 있으며 37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주제명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Korea'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한국식 발음인 'Tok Island(Korea)'로

〈표 4〉 주요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현황

국가		주제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미 국	주제명수 (%)	319 (3.9)	4,066 (50.2)	192 (2.4)	865 (10.7)	798 (9.9)	818 (10.1)	1,034 (12.8)		8,092 (100.0)				
	레코드수 (%)	3,905 (4.3)	49,878 (54.6)	1,706 (1.9)	4,777 (5.2)	5,317 (5.8)	11,062 (12.1)	14,235 (15.6)	401 (0.4)	91,281 (100.0)	48,982 (53.7)	35,128 (38.5)	7,171 (7.8)	
영 국	주제명수 (%)	93 (3.5)	1,253 (46.7)	40 (1.5)	197 (7.3)	215 (8.0)	178 (6.6)	710 (26.4)		2,686 (100.0)				
	레코드수 (%)	4,225 (52.1)	4,225 (52.1)	58 (0.7)	547 (6.7)	459 (5.7)	504 (6.2)	2,018 (24.9)	17 (0.2)	8,113 (100.0)	5,081 (62.6)	2,111 (26.1)	921 (11.3)	
프랑스	주제명수 (%)	55 (4.1)	542 (40.6)	9 (0.7)	122 (9.1)	189 (14.1)	163 (12.2)	256 (19.2)		1,336 (100.0)				
	레코드수 (%)	185 (3.4)	1,690 (30.7)	12 (0.7)	425 (7.7)	728 (13.2)	764 (14.4)	1,669 (30.4)	25 (0.5)	5,498 (100.0)	4,168 (75.8)	1,029 (18.7)	307 (5.5)	
독 일	주제명수 (%)	11 (2.5)	140 (32.2)	7 (1.6)	17 (3.9)	89 (20.5)	13 (3.0)	158 (36.3)		435 (100.0)				
	레코드수 (%)	163 (9.7)	522 (30.7)	30 (1.8)	129 (7.6)	183 (10.8)	75 (4.4)	439 (26.0)	148 (8.8)	1,689 (100.0)	621 (36.8)	889 (52.6)	179 (10.6)	
호 주	주제명수 (%)	85 (2.0)	1,905 (44.6)	79 (1.8)	322 (7.5)	539 (12.6)	351 (8.2)	995 (23.3)		4,276 (100.0)				
	레코드수 (%)	887 (2.7)	17,885 (55.0)	390 (1.2)	1,476 (4.6)	2,731 (8.4)	2,178 (6.7)	6,571 (20.2)	374 (1.2)	32,492 (100.0)	17,483 (53.8)	11,700 (36.0)	3,303 (10.2)	
캐나다	주제명수 (%)	7 (1.5)	253 (53.6)	10 (2.1)	16 (3.4)	11 (2.3)	28 (5.9)	147 (31.2)		472 (100.0)				
	레코드수 (%)	10 (0.9)	473 (44.0)	41 (3.8)	36 (3.3)	13 (1.2)	39 (3.6)	453 (42.1)	10 (0.9)	1,075 (100.0)	780 (72.6)	201 (18.7)	94 (8.7)	
이탈리아	주제명수 (%)	11 (14.5)	24 (31.6)	4 (5.3)	7 (9.2)	2 (2.6)	4 (5.3)	24 (31.6)		76 (100.0)				
	레코드수 (%)	20 (19.2)	25 (24.0)	4 (3.8)	8 (7.7)	2 (1.9)	4 (3.8)	30 (28.8)	11 (10.6)	104 (100.0)	95 (90.4)	4 (3.8)	5 (4.8)	
스페인	주제명수 (%)	4 (2.3)	91 (52.0)	6 (3.4)	20 (11.4)	12 (6.9)	8 (4.6)	34 (19.4)		175 (100.0)				
	레코드수 (%)	7 (0.9)	404 (51.7)	11 (1.4)	109 (14.0)	27 (3.5)	26 (3.3)	109 (14.0)	88 (11.3)	781 (100.0)	408 (52.2)	206 (26.4)	167 (21.4)	
멕시코	주제명수 (%)	5 (5.1)	49 (49.5)	2 (2.0)	8 (8.1)	6 (6.1)	7 (7.1)	27 (27.3)		99 (100.0)				
	레코드수 (%)	23 (8.1)	118 (41.4)	6 (2.1)	22 (7.7)	6 (2.1)	14 (4.9)	80 (28.1)	16 (5.6)	285 (100.0)	160 (56.1)	62 (21.8)	63 (22.1)	
터 키	주제명수 (%)	2 (2.2)	32 (34.4)	5 (5.4)	19 (20.4)	1 (1.1)	3 (3.3)	31 (33.3)		93 (100.0)				
	레코드수 (%)	4 (1.7)	80 (33.6)	5 (2.1)	40 (16.8)	14 (5.9)	28 (11.8)	52 (21.8)	15 (6.3)	238 (100.0)	226 (94.9)	9 (3.8)	3 (1.3)	
폴란드	주제명수 (%)	1 (0.8)	73 (58.9)	2 (1.6)	6 (4.8)	9 (7.3)	15 (12.1)	18 (14.5)		124 (100.0)				
	레코드수 (%)	1 (0.3)	192 (54.4)	3 (0.8)	28 (7.9)	19 (5.4)	32 (9.1)	67 (19.0)	11 (3.1)	353 (100.0)	139 (39.4)	57 (16.1)	157 (44.5)	
네덜란드	주제명수 (%)	24 (17.7)	46 (34.1)	7 (5.2)	23 (17.0)	4 (3.0)	4 (3.0)	27 (20.0)		135 (100.0)				
	레코드수 (%)	46 (10.4)	75 (17.0)	7 (1.6)	101 (22.9)	36 (8.2)	9 (2.0)	152 (34.5)	15 (3.4)	441 (100.0)	273 (61.9)	132 (29.9)	36 (8.2)	

주제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러시아	주제명수 (%)	6 (2.0)	179 (58.9)	9 (3.0)	30 (9.9)	36 (11.9)	19 (6.3)	25 (8.2)		304 (100.0)			
	레코드수 (%)	26 (3.1)	393 (47.5)	52 (6.3)	59 (7.1)	143 (17.3)	56 (6.8)	87 (10.5)	11 (1.3)	827 (100.0)	327 (39.6)	317 (38.3)	183 (22.1)
중 국	주제명수 (%)	6 (0.9)	274 (39.8)	11 (1.6)	40 (5.8)	202 (9.3)	16 (2.3)	139 (21.8)		688 (100.0)			
	레코드수 (%)	30 (0.7)	837 (19.2)	17 (0.4)	415 (9.5)	2,038 (46.8)	128 (2.9)	856 (19.7)	31 (0.7)	4,352 (100.0)	1,556 (35.8)	1,702 (39.1)	1,094 (25.1)
일 본	주제명수 (%)	48 (5.4)	600 (67.3)	70 (7.8)	59 (6.6)	48 (5.4)	20 (2.2)	47 (5.3)		892 (100.0)			
	레코드수 (%)	450 (3.6)	8,118 (65.7)	583 (4.7)	555 (4.5)	667 (5.4)	250 (2.0)	1,645 (13.3)	86 (0.7)	12,353 (100.0)	7,392 (59.8)	3,318 (26.9)	1,643 (13.3)

* 2011. 5. 25. 기준임

표기되어 있으며, 140건이 검색된다. 'Take-shima (Korea)'를 비롯하여 '가지도', '삼봉도', '리앙 쿠르암', '호네트암' 등 참조어가 16개 수록되어 있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라는 표목 아래 'Tong-hae', 'East Sea(Korea and Japan)', 'Korea, See of', 'Sea of Korea' 등의 참조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72건이 검색된다. 'East Sea'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600여건이 검색되지만 대부분의 레코드는 '동해'와 관련이 없는 각국의 동쪽바다를 의미하고 있다. '압록강'관련 주제명은 중국식 발음인 'Yalu River'와 'Yalu River Region'로 표기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지리 한정어로 첨가하고 있으며, 5건이 검색된다. '두만강'관련 주제명은 중국식 발음인 'Tumen River'와 'Tumen River Region'로 표기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을 지리 한정어를 첨가하고 있으며, 22건이 검색된다. '백두산'관련 주제명은 한국식 발음인 'Paektu Mountain (Korea)'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68건이 검색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명인 '독도'와 '백두산' 등은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은 중국어 발음으로 되어 있다. '동해'는 일본의 입장에서 표기되어 있다.

3.1.2 영국 국가도서관

영국 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수도인 Lond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4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6%에 달하는 8,113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20,91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 관련 레코드가 2,111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921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역사'가 263건(9.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인(237건)>지리(216)>언어(215)>한국전쟁(212) 외교(19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역사'가 1,012건(12.5%)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941건)>정치(897)>외교(668)>문화(533)>한국전쟁(51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자료

는 알파벳으로 번자표기가 되어 있으며,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회도서관의 LCSH를 적용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어 독도,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표기는 미국의회도서관의 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색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태권도’(Tae kwon Do, Tae kwon do, Taekwondo 등으로 표기)가 76건인데 비해 ‘가라데’(Karate)는 388건이며, 표제가 ‘태권도’인 경우에도 일부 레코드에는 ‘가라데’라는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Tok Island(Korea)’ 41건, ‘동해’관련 레코드는 ‘Japan, Sea of’ 14건이 검색된다. 그리고 김치 ‘Kimchi’는 4건, 두만강 ‘Tumen River’ 3건, 압록강 ‘Yalu River’ 2건, 백두산 ‘Paektu Mountain(Korea)’ 2건이 검색된다.

3.1.3 프랑스 국가도서관

프랑스 국가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bbreviated BnF)은 수도인 Paris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만건의 자료(도서 1,400만건)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5,498건으로 전체 자료의 0.023%에 달하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15,45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자료는 알파벳으로 번자표기되어 있으며, 한글자판 검색이 가능하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029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307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언어’가 189건(14.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34건)>외교(132)>사회일반(95)>경제(85)>한국전쟁(7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

포에서도 ‘역사’가 1,193건(21.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728건)>문화(381)>한국전쟁(341)>정치(331)>경제(31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Taekwen do’(태권도)와 ‘Karaté’(가라데)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의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가라데의 하위세목으로 주제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62건인데 비해 가라데는 265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제가 ‘태권도’이지만 주제명이 ‘Karate’로 표기된 것도 5건이 있다. ‘독도’관련 주제명 ‘Tok to(Corée S.; îles)’이 33건 검색되며, ‘Take-shima’로 표제 키워드 검색으로 14건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모두 ‘Tok to(Corée S.; îles)’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모두 ‘일본해’를 의미하는 ‘Japon, Mer du(Pacifique Nord)’로 되어 있으며 17건이 검색된다. 기타 김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3.1.4 독일 국가도서관

독일 국가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abbreviated DNB)은 Frankfurt am Main, Leipzig, Berlin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4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1%인 1,689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5,66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889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179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역사’가 125건(28.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89건)>

경제(56) > 정치(45) > 한국전쟁(28) > 한국인(1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역사'가 348건(20.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183건) > 경제(171) > 종교(124) > 정치 > 스포츠(96)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 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77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239건에 이르고 있다. '독도' 관련 주제명은 1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었지만 주제명을 'Tokto'로 기술하고 있으며, 국가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전거레코드를 살펴보면 독도의 국가 표기는 'Südkorea(XB-KR)'와 'Japan(XB-JP)'과 같이 양쪽 모두를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는 "1953년 이후 한국이 관리. 일본과 한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관할권 주장"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는 미국의회도서관의 표기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Paektusan'(백두산)은 3건이 검색되며, 한국과 중국의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다. 'Tumen-Gebiet'(두만강지역)은 4건이 검색되며, 'Tumen'(두만강)은 전거레코드에만 주제명으로 수록되어 있고,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다. 'Kimchi'(김치)는 2건이 검색되며, 'Yalu'(압록강)은 관련 레코드가 있지만 주제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5 호주 국가도서관

호주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은 수도인 Canberra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00만건의 자료(도서 270만건)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65%인 32,492건으로 조사 대상 국가도서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일본

관련 레코드는 1.78%인 89,23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알파벳으로 번자표기되어 있으며,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 관련 레코드가 11,700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3,303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역사'가 668건(9.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539건) > 외교(468) > 한국인(450) > 경제(381)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역사'가 4,59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4,547건) > 정치(3,331) > 경제(3,251) > 언어(2,731)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관련 주제명은 'Tae kwon do'(태권도)와 'Karate'(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69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329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제가 '태권도'이지만 주제명이 'Karate'로 표기된 것도 5건이 있다. 그런데 이들 레코드를 분석해 보면 88서울올림픽 이후에 'Karate'와 'Tae kwon do'로 주제명을 구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Karate'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 관련 주제명 'Tok Island(Korea)'로 10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 'Takeshima(shimaneken)'로도 14건이 검색된다. 표제에 '竹島'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주제명은 'Tok Island(Korea)'와 'Takeshima(shimaneken)'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동해' 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 48건이 검색되며, 표제에 '동해'나 'East Sea'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Japan, Sea of'만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김치 'Kimchi' 21건, 백두산 'Paektu Mountain(Korea)' 32건, 압록강 'Yalu River

(China and Korea)' 2건, 두만강 'Tumen River' 9건이 검색된다.

한편 이들 주제명의 영문 번자표기는 'Taekwon do', 'Kimchi', 'Tokto', 'Tonghae', 'Paektusan', 'Amnokkang', 'Tuman'gang'와 같다.

3.1.6 캐나다 국가도서관

캐나다 국가도서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은 수도인 Ottawa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5%인 1,075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4,17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01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94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한국전쟁'이 80건(16.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인(55건)>경제(47)>문화(38)>외교(32)>지리·지도(28)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한국전쟁'이 227건(21.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지리(151건)>경제·무역(113)>정치(76)>문화(68)>한국인(66)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 국가도서관에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지만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69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329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제가 '태권도'이지만 주제명이 'Karate'로 표기된 것도 5건이 있다. 그런데 김치, 독도,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참고로 캐나다도서관종합목록(Canadian Libraries)을 검색한 결과 독도관련 주제명은 'Tok Island(Korea)' 144건, 동해관련 주제명은 'Japan, Sea of' 150건이 검색된다.

3.1.7 이탈리아 국가도서관

이탈리아 국가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은 Firenze와 Rome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규모가 더 큰 Firenze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탈리아 Firenze 국가도서관은 약 6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2%에 불과한 104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58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9건, 북한관련 레코드가 3건, 한국관련 레코드가 95건으로 대부분의 레코드가 실제로는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Corea'가 수반된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한국전쟁'이 11건(14.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10건)>역사(9)>종교(8)>예술일반(6)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한국전쟁'이 14건(13.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3건)>경제(11)>종교(10)>사회주의·공산주의(1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국가도서관에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태권도'관련 레코드가 5건이 있지만 주제명이 'Taekwondo'로 부여된 것은 1건이며, 나머지는 'Karate'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라테관련 전체 주제명 레코드는 60건에 이르고 있다. 기

타 김치나 독도,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한국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8 스페인 국가도서관

스페인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은 수도인 Madrid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3%에 불과한 781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1,91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가 408건(52.2%), 남한관련 레코드가 206건(26.4%), 북한관련 레코드는 167건(21.4%)으로 남북한을 구분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에서는 '정치'가 34건(19.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7건)>경제(16)>외교(13)>언어(12)>한국전쟁(12)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정치'가 160건(20.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75건)>태권도(68)>경제(61)>역사(50)>한국전쟁(34)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태권도' 관련 레코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관련 주제명 레코드가 69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329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제가 '태권도'이지만 주제명이 'Karate'로 표기된 것도 5건이 있다. '독도'의 직접적인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았지만 표제에 키워드 'Dokdo'가 나타난 레코드가 7건 검색된다. 그런데 이들의 레코드를 조사한 결과 주제명으로 모두 'Corea(República)-

Fronteras-Japón'(한국-국경-일본)과 'Japón-Fronteras-Corea(República)'(일본-국경-한국) 2개를 동시에 기재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관련 주제명은 'Mar del Japón'(일본해)로 4건이 검색되며, 표제에 'East Sea'(동해)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Mar del Japón'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타 김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3.1.9 멕시코 국가도서관

멕시코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México)은 수도인 Mexico C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2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2%에 불과한 285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5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285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62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63건으로 오히려 북한관련 레코드가 1건 더 많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역사'가 18건(18.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5건)>외교(9건)>한국전쟁(8건)>한국인(6건)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역사'가 45건(15.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42건)>한국전쟁(24)>공산주의(23)>경제(18)>예술일반(15)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에 관한 레코드가 3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108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표제에 'Tae Kwon Do'라는 키워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8건의 레코드

가운데 주제명은 7건이 'Karate'가 부여되어 있다. 이들의 레코드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서울에서 개최된 88올림픽 이전에 작성된 레코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타 김치나 독도,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3.1.10 터키 국가도서관

터키 국가도서관(Milli Kütüphane)은 수도인 Ankara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93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주제명이 부여된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8%에 불과한 285건이며, 일본관련 주제명이 부여된 레코드는 5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레코드가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즉, 주제명 검색이 아닌, 표제 속에 포함된 키워드 검색을 병행하면 한국과 일본관련 레코드가 각각 850여 건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238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9건, 북한관련 레코드가 3건으로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레코드에 'Kore'가 수반된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역사'가 22건(23.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예술일반(13건)>문화(11)>경제(9)>한국전쟁(9)>정치(7)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는 '문화'가 38건(16.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30건)>예술일반(25)>한국전쟁(22)>소설(19)>경제(14)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태권도에

관한 레코드가 2건인데 비해 가라테는 1건이다. 그렇지만 주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서의 표제 키워드로 검색하면 태권도는 16건이지만 가라테는 50건에 이르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가 1건 있지만 주제명은 김치가 아니라 'Korea'라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독도,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주제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3.1.11 폴란드 국가도서관

폴란드 국가도서관(Biblioteka Narodowa)은 수도인 Warsaw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9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4%에 불과한 353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2,43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57건인데 비해 북한관련 레코드는 157건으로 3배에 이르고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외교'가 26건(21.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5건)>문화(15)>역사(12)>언어(9)>경제(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포에서는 '정치'가 85건(24.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42건)>외교(38)>문화(32)>경제(24)>언어(19)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관련 주제명은 '가라테'와 구분하여 주제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레코드 수는 'Taekwondo'가 9건인데 비해 'Karate'는 67건에 이르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가 1건 있지만 주제명은 '김치'가 아니라 'Korea'라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기타 '독도', 동해, 압록

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12 네덜란드 국가도서관

네덜란드 국가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은 Hague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7%에 불과한 411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1,08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273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32건인데 비해 북한관련 레코드는 36건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신학·종교'가 21건(15.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17건)>예술일반(13)>역사(12)>한국전쟁(9)>지리(6)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는 '역사'가 68건(15.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신학·종교(44건)>한국전쟁(43건)>지리(41)>예술일반(40) ...' 순이다. 여기서 '신학·종교' 관련 레코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태권도' 관련 주제명은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Taekwondo'에 관한 레코드가 29건인데 비해 'Karate'는 71건에 이르고 있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Dokdo'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김치' 관련 주제명은 'Kimchi'로 검색하면 7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모두 식품 '김치'가 아니고 인명이다. '동해'와 '압록강' 관련 레코드로 'Sea of Japan' 2건, 'Yalu' 4건이 검색되지만 여기에 대한 주제명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백두산,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13 러시아 국가도서관

러시아 국가도서관(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은 수도인 Moscow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7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5%에 불과한 827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2,82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한국관련 레코드 827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317건, 북한관련 레코드가 18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경제'가 57건(18.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36건)>한국인(22)>사회일반(22)>외교(21)>역사(1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 분포에서는 '언어'가 143건(17.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138건)>역사(69)>외교(66)>음식(49)>한국인(3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음식(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관련 레코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태권도' 관련 레코드는 'Taekwon-do'와 'таэквондо' 등의 표제 키워드로 40건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체육문화와 스포츠-레슬링' 등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каратэ'(가라테)는 주제명으로 234건의 레코드가 검색된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Dokdo' 3건, 'Takeshima' 1건이 검색되지만 모두 표제 키워드 검색결과이다. 즉, 'Dokdo'나 'Takeshima'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사-일본'과 '역사-한국'과 같이 포괄적인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12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Японское море'(일본해)로 나타나 있다. '김치' 관련 레코드가

1건 있지만 주제명은 김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표제 키워드로 두만강 9건, 압록강 7건, 백두산 3건이 검색되고 있지만 김치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3.1.14 중국 국가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中國國家圖書館)은 수도인 北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41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5%인 11,153건이며, 일본관련 레코드는 69,58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를 언어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중국어 4,352건, 영어 3,261건, 일본어 2,386건, 한국어 1154건이다.

중국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는 '外文文獻數據(외국문헌)'와 '中文及特藏文(Special Chinese and Tibetan)'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언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다. 미국의도서관의 경우에는 외국 자료는 처음부터 영어로 번자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주제명은 언어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LCSH를 적용하고 있어 통합검색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어는 중국의 '中國分類主題詞表', 영어자료는 LCSH, 일본어는 일본의 주제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어자료는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 자료와 외국자료를 함께 적용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언어별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표 4〉에서 중국은 중국 국가도서관의 '中文及特藏文'을 통해 중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를 분석

한 것이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언어'가 202건(29.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08건)〉외교(97)〉경제(55)〉정치(47)〉문화(35)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언어'가 2,038건(46.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763건)〉외교(232)〉태권도(188)〉경제(168)〉TV 드라마(16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언어' 관련 레코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태권도'와 'TV 드라마' 관련 레코드가 비교적 많은 것도 특이한 점이다.

한국관련 레코드 4,352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는 1,702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1,09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통칭하여 '朝鮮'(Korea)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남한은 '韓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표제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北韓'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대부분 '朝鮮'으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大韓民國과 南韓은 '韓國'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朝鮮'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지칭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곳이 많다. '朝鮮半島'(한반도), '朝鮮戰爭'(한국전쟁), '美國侵略戰爭' 등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을 기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상이나 정치인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가 표기순서를 보면 '朝蘇', '朝日'로 표기하면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은 '日韓', '美韓'으로 표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조선'을 표기하다 보니 조선과 한국의 구분이 모호하며, 또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인의 표기도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도'관련 자료의 주제명이 일본어 자

료(일본측 자료)에는 ‘竹島(島根縣)’ 또는 ‘竹島問題’, 영어 자료에는 LCSH를 채용하여 ‘Tok Island(K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며, 중국어 자료는 검색되지 않았다. 한국어 자료(한국측 자료)는 표제 키워드로 ‘독도’가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당 국가의 표기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어 자료에 ‘독도’ 주제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해’ 관련 주제명은 ‘日本海’로 표기하고 있으며, 중국어 자료 15건이 검색된다. 그리고 영문자료는 ‘Japan, Sea of’으로 9건이 검색된다. 김치는 ‘泡菜’로 부여하고 있으며, 주제명으로 ‘김치’와 ‘キムチ’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권도는 ‘跆拳道’라는 주제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121개의 레코드가 검색되고 있다. 주제명으로 ‘白頭山’(백두산) 4건, ‘圖們江’(두만강) 10건, ‘鴨綠江’(압록강) 22건의 레코드가 검색되며, 국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3.1.15 일본 국가도서관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図書館)은 東京과 關西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662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3%인 12,34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의 주제별 분포와 해당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으며, 또한 한국관련 레코드 12,353건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3,318건, 북한관련 레코드는 1,64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항목별 주제명 분포는 ‘경제’가 143건(16.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일반(134건)>외교(105)>한국인(54)>정치(49)>언어(48) ...’ 순이다. 레코드

분포에서도 ‘경제’가 1,471건(11.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416건)>사회일반(1,392)>외교(1,249)>역사(1,088)>한국인(95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경제’ 관련 레코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한국의 국가 명칭을 조선시대 국명인 ‘朝鮮’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식 명칭인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괄호속의 한정어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호를 6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독도’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외교·국제문제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竹島問題’로 표목을 설정하고 있다. ‘동해’에 대해서는 ‘日本海海戰(1905)’, ‘日本海中部地震(1983)’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본해를 표현하고 있다.

역사분야에 있어 ‘가야’의 경우, 참조어로 설정된 ‘任那’는 일본이 식민사관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임라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발해’는 중국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참조어 설정이나 NDC내의 배열에서 중국 역사로 전개되고 있다.

‘김치’ 관련으로 28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국제적 정식명칭인 ‘Kimchi’ 대신에 ‘キムチ(기무치)’를 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권도(テコンド)’는 서양서만 5건의 레코드가 검색된다. ‘白頭山’은 주제명으로 14건이 검색되며, 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압록강’과 ‘두만강’ 관련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표제 키워드 ‘Yalu’(압록강) 33건, ‘豆滿江’ 52건의 레코드가 검색된다.

3.2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관련 주제명 분석

앞절에서 분석한 주요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2.1 태권도

조사대상 15개국 모두 ‘태권도’관련 주제명이 나타나 있으며, 국가나 언어에 관계없이 대체로 ‘Tae kwon do’, ‘Taekwon do’, ‘Taekwon-do’, ‘Taekwondo’, ‘跆拳道’, ‘テコンド’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런데 ‘태권도’에 비해 ‘가라데’ 관련 레코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3~5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제에 ‘태권도’라는 용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더라도 주제명은 ‘가라데’로 부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작성된 레코드에는 ‘태권도’와 ‘가라데’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3.2.2 김치

‘김치’ 관련 주제명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검색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국제적 정식명칭인 ‘Kimchi’(김치)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 ‘Kimuchi’(기무치)로 표기할 뿐이며, 중국에서는 ‘泡菜’로 표기하고 주제명으로 ‘김치’와 ‘キムチ’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김치’ 관련레코드가 1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일반주제명인 ‘Korea’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김치’관

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식분야 우리의 세계적인 고유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김치’관련 문헌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3.2.3 독도

‘독도’관련 주제명의 표기는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면서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지리 한정어를 함께 나타내고 있느냐하는 점이 중요하다. 표기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첫째,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

미국, 영국, 호주: ‘Tok Island (Korea)’

프랑스: ‘Tok to (Corée S.; îles)’

둘째,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지만 지리 한정어가 없거나 한국과 일본을 모두 표기

독일: ‘Tokto’, 네덜란드: ‘Dokdo’

셋째, 해당 국가의 표기내용을 그대로 따름

중국: 일본어자료는 ‘竹島(島根縣)’ 또는 ‘竹島問題’, 영어자료는 ‘Tok Island (Korea)’로 표기

넷째, ‘죽도(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竹島問題’

다섯째, 표제에 ‘독도’라는 키워드가 있어도 포괄적인 일반 주제명을 복수로 표기

러시아: '역사-일본', '역사-한국'
 스페인: '한국-국경-일본', '일본-국경-한국'
 여섯째, '독도'관련 레코드가 없음(표제 키워드로도 검색되지 않음)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3.2.4 동해

'동해'관련 주제명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검색되며, 표제에 'East Sea'라는 의미의 키워드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모두 '일본해'를 의미하는 'Japan, Sea of', 'Japon, Mer du(Pacifique Nord)', 'Mar del Japón', 'Японское море', '日本海'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표제 키워드 검색에서 'East Sea'나 'Sea of Japan'이 검색되어도 주제명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등에서는 관련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3.2.5 압록강

'압록강'관련 주제명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검색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Yalu River (China and Korea)'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鴨綠江'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로 'Yalu' 또는 'Ялу' (압록강)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압록강'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3.2.6 두만강

'두만강'관련 주제명은 미국, 호주, 독일 등에

서 검색되었으며, 'Tumen River'로 표기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을 지리 한정어를 첨가하고 있다. 영국은 'Tumen River Region', 중국은 '圖們江'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로 '豆滿江', 'Tumen', 'реки Туманган'(두만강)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만강'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3.2.7 백두산

'백두산'관련 주제명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검색되며, 이들 국가에서는 'Paektu Mountain(Korea)'으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白頭山'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로 'Пэкту Гора'(백두산)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두산'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4. 결론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주제명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국이 91,281건으로 가장 높으며, 호주, 중국, 일본이 1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7개국이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

가도서관이 일본에 비해 대략 2~3배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분포에서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6개국, '경제'가 3개국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는 '한국전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전쟁'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비해 남한관련 레코드가 1.5~5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는 오히려 북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폴란드는 남한의 16.1%에 비해 북한이 44.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 남한과 북한관련 레코드가 모두 5%에도 이르지 않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주제명상으로는 남한과 북한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의 용어를 분석한 결과 국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 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독도'의 경우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면서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이며,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가 특정 국가를 한정하지 않거나 관련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주제명표기에 있어 자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나타냄으로써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한국의 국가명을 아직도 조선시대 국명인 '朝鮮'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역사분야에 일부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외교·국제문제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竹島問題'로 표목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Korea를 '朝鮮'으로 표기하다 보니 '朝鮮'과 '韓國'의 구분이 모호하고, 또한 중국의 朝鮮族과 韓國人の 표기도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관련 주제명이 누락되거나 레코드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장서수집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관련 자료가 널리 소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 간 자료교환이나 기증 확대, 출판물의 배포시스템 개선, 한국관련 자료의 원어 출판 장려 등과 같은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44: 237-272.
-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김태수. 1997.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4(1): 77-106.
- 남태우 외. 2008.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91-310.
- 문지현, 김정현. 2011.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윤희윤. 2006.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31.
- 정연경. 2010.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51-72.
- 최달현, 이창수. 2010. 『정보자료의 분류와 주제명』.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基本件名標目表』. 1999. 第4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cited 2011.5.25]. <<http://www.ndl.go.jp/>>.
- 中國國家圖書館. [cited 2011.5.25]. <<http://www.nlc.gov.cn/>>.
- 『中國分類主題詞表』. 2005. 第2版.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 Chan, Lois Mai. 2005.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Kim, Joy. 1989.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Library of Congress. 2009.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31th 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cited 2011. 5.25]. <<http://www.bne.es/>>.
- Biblioteca Nacional de México. [cited 2011. 5.25]. <<http://bnm.unam.mx/>>.
- 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Firenze. [cited 2011.5.25]. <<http://www.bncf.firenze.sbn.it/>>.

Biblioteka Narodowa. [cited 2011.5.25].
〈<http://www.bn.org.pl/>〉.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cited 2011.
5.25]. 〈<http://www.bnf.fr/>〉.

The British Library. [cited 2011.5.25].
〈<http://www.bl.uk/>〉.

Deutsche Nationalbibliothek. [cited 2011.5.25].
〈<http://www.d-nb.de/>〉.

Koninklijke Bibliotheek. [cited 2011.5.25].
〈<http://www.kb.nl/>〉.

Library and Archives Canada. [cited 2011.5.25].
〈<http://www.collectionscanada.gc.ca/>〉.

Library of Congress. [cited 2011.5.25].
〈<http://www.loc.gov/>〉.

Milli Kütüphane. [cited 2011.5.25].
〈<http://www.mkutup.gov.tr/>〉.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ited 2011.5.25].
〈<http://www.nla.gov.au/>〉.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cited 2011.5.25]. 〈<http://www.rsl.ru/>〉.